

<이달의 주제 - 행형>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헌법 27조 4항 -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김기웅 순경 다시 피고인석에

대법원 '파기환송' 고법으로 되돌려 "살인에 대한 증거가 없다"

지난 28일 대법원 제3재  
판부(주심 박준서 대법관)  
는 '청수장'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3개월 동  
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  
오다 진범이 불잡혀 석방  
된 김기웅씨에 대한 상고  
심에서 "살인에 대한 증거  
가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  
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김씨는 서울고법의 피고인  
석에, 진범혐의를 받고 있  
는 서아무개씨는 서울지법  
의 피고인석에 서는 희극  
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경찰이  
나 법원의 잘못으로 옥살이  
를 시켜놓고 이제 와서 절차  
운운하며 또다시 피고인석  
에 서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대법원에서 직접 무  
죄확정 판결을 내려줄 것"  
을 요청했다면서, "그러  
나 대법원이 국민의 인권을  
옹호해야 할 임무를 가졌음  
에도 이와같이 파기환송을  
한 것에 대단히 실망했다"  
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김씨가 지난 해 12  
월 24일 서울지법에 민주  
당 강수림 인권위원장과  
함께 당시 담당검사인 김

홍일 검사와 수사를 담당  
했던 김종우 경남지방경찰

원진직업병 단체 하나로  
29일 '원직협' 발족

원진레이온 4개 환자단체  
가 지난 29일 오후 구리시  
농협강당에서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원진직업  
병 피해가족협의회」(회장  
김주석) 발족식을 가졌다.

「원직협」은 이날 지난 11  
월 9일 노동자와 회사간에  
합의서의 사후조치중의 하  
나인 원진노동자의 진료문  
제 등을 당국이 뚜렷한 해  
결대안 없이 치료종결을  
서두르고 있어, 이에 대해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언론의 인권침해 구제"  
"바른 언론 시민연합" 창립

언론의 인권침해나 오보  
등에 대한 구제에 힘쓸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연  
합" 창립총회가 2월 2일  
오후 4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시민연합'은 피해자의 요  
청이 있을 경우 변호인단  
을 구성,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대신해 줄 계  
획이다.

<인권하루소식> 100호 특집

"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원고 모집

원고지 3매 이내로 목요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엠네스티 한국지부 총회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지  
난 30일 대전 라이프 관광  
호텔에서 한국지부 회원,  
로빈 킴과트릭 홍콩지부  
장, 필리핀의 마디 파파  
엠네스티 국제집행위원 등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허  
장수 신부를 지부장에 재  
선출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교도소장에게 인사안했다고 징벌방에"

양심선언 박석진 일경 지난 19일 영등포교도소

전경해체를 주장하는 양  
심선언으로 구속기소되어  
영등포교도소(소장 안선  
홍)에 수감중인 박석진씨  
가 지난 19일 점호 도중  
교도소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달간의  
금치처분을 받고 있다고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  
대책위」(위원장 김종일)가  
30일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교도소  
당국은 박씨에게 포승과  
수정을 채운 채 징벌방(먹  
방)에서 낮에 담요도 없이  
지내게 하였으며, 박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27  
일야 포승과 수정을 풀  
고 낮에 모포 1장, 밤에  
담요 3장과 매트리스 1장  
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또한 박씨는 31일 담당변  
호사와 점견도중 "징벌방  
이 너무 춥다. 몸이라도  
녹이게 더 있어 달라"며  
혹독한 추위를 호소했다.

한편 교도소 당국은 지난  
24일 박씨의 부모에게 면  
회를 허용해주면서 징벌의  
사유를 숨긴 채 박씨가 잘  
못해서 금치처분을 내린  
것처럼 회유하여 "부모에  
한해서만 1주 1회 면회허  
용"이라는 각서를 받은 것  
으로 알려졌다.

또 31일 민가협 회원, 박  
씨의 매형 등이 강봉학 보  
안과장을 면담했을 때도  
징벌의 사유대신에 포승과  
수정을 채우는 과정에서  
박씨가 반항한 사실만 강  
조하였다.

### ◆ 공 판 안 내 ◆

□2월 2일(수)  
·이용권, 집시법, 10시, 서울형사지법 317호, 2회  
·김옥기의3인, 국보법, 11시, 서울형사지법 418호, 속행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5시, 서울민사지법 562호

□2월 4일(금)  
·김삼석외 1인, 국보법, 2시, 서울형사지법 311호, 4회  
·황석영, 국보법, 2시, 서울고법 309호, 2회  
·한주석, 특가법(뇌물등), 4시, 서울고법 309호

「인권하루소식」 1월분 총목차(78호-96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1/5	78	1	고문피해자의 치료대책 결실,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29일 국회 청원, 민사소송 제기 문국진씨 신체감정중/민언협, 「93년 10대 왜곡·편파 보도사례」 선정, 백운두 선장 생존설,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 홍성은씨 기자회견
		2	신년특집/한승헌 변호사에게 듣는다/잘못된 과거를 물어둔 채 '역사의 심판'이나 '미래화'를 역설하는 것은 올바른 개혁의 길이 아니다
1/6	79	1	양심수 군문제 해결 요구, 81일째 농성중,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한 '해결 촉구' 국방부는 경허히 받아들여야/AI, 김형렬씨 양심수 적용, 컴퓨터 통신에 사노맹관련 글 올려 국보법 최초 기소
		2/3	「인권하루소식」 12월분 총목차(58호-77호)
1/7	80	1	44년 옥살이 김선명씨 언제까지..., 민가협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목요일집회' 새해에도 계속 이어져/AI도 김선명씨 석방 요구/민정련 광주지부 회원 2명 또 연행, 경찰 연행장소 안 알려/'사랑방' 이성훈씨 호주 외교훈련과정에 참가
		2	유엔총회 '인권고등판무관' 신설 결의문/살인미수범' 미군 병사 23일째 수사 못해
1/8	81	1	'말', '한겨레신문'도 국가기밀에 해당, 김삼석·김은주씨 2차 공판, 검찰 "목적수행위한 국가기밀 탐자·수집"/"국방부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라", '양군모' 양심수 군문제 해결 위해 10일 총력투쟁
		2	김은주씨에 대한 검찰 신문내용(요약 발췌)
1/11	82	1	"대법원, 하급심 잘못 빨리 시정해야", 김기용씨 '복직조치', 「무죄판결」등 후속조치 전혀 이뤄지지 않아/MBC 'PD수첩' 김기용순경사건, '살인범으로 몰린 경찰-끝나지 않은 이야기'
		2/3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대책 촉구, 민정련 28일 김영삼 대통령에 질의서 전달/고 박종철씨 7주기 묘소참배, 9일 모란공원 묘지/김기용 순경, 고소·고발장
1/12	83	1	출소장기수 김인서·김영태·함세환씨 북한 송환 요구, 10일 KNCC 인권위, 북한 가족들의 편지 통일원에 보내기도/억울한 옥살이 김기용 순경 대법원에 탄원서, "무죄확실한만큼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
		2/5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1일-10일)
1/13	84	1	연초부터 철거나서 주민들과 충돌, 양천구 신정5지구 재개발지역, 경찰 주민들만 연행조사중/"외국인 노동자도 기계는 아니다", 13명 경실련서 10일부터 농성중, 산재치료·보상등 요구/소사장제'반대 단식농성, '경기유리' 노조위원장/성폭력상담소 최영애소장, 제11회 여성동아대상 수상
		2	영국 옵서버신문 국제앰네스티 빼엘 씨네 사무총장 인권선언일 인터뷰, "교묘해진 고문현실"(요약)-한국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외국인 노동자들의 호소문(발췌)
1/14	85	1	과거와의 화해는 고문피해자 치료로부터, 오늘 민주열사 박종철 7주기, '고문방지법' 제정 서둘러야/국보법상의 이적단체 구성죄엔 무죄, 군무이탈엔 3년 선고, 32사단 군사법원 조정희일병 1심선고
		2	단체탐방 8,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고문희생자들, 아직도 고문은 끝나지 않았다
1/15	86	1	'추모'를 넘어 구체적 '결실'로, 14일 '박종철열사' 7주기 추모식·기념강연 열려/sbs '투맨쇼' 15일 성희룡 토론코너 마련
		2	특집:고문후유증 사례 1-최영미씨/"내가 먼저 죽으면 영미는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의 절규
1/18	87	1	상습적인 남편의 폭력, "가정문이니 상관하지 마라?", 16일 안양에서 폭력남편 살해사건, 아내구타문제 적극 대처 필요/키피 심부름 거절한 여사원 해고는 "인사권 남용", 서울민사지법 합의 15부/미허가 북한 전화통화 국보법 구속, 15일 경찰청
		2/4	5대 일간지 기사색인(1월 11일-17일)

5대 일간지 및 1·2월호 월간지 색인은 <인권하루소식> 1월분 목차 관계로 내일로 미룹니다.

「인권하루소식」 1월분 총목차(78호-96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1/19	88	1	'정치판사' 청산이 범조개혁의 출발, 17일 대한변협 "사법부 개혁의지 실망" 성명서 내/헌법재판소 소신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자치단체장 선거연기 사건등 결정 서둘러야
		2	특집 고문후유증 사례 2-김복영씨 '형사들이 집을 도청한다며 필답으로 식구들과 대화'
1/20	89	1	'민족의 큰별' 추모의 발길 끊임없어, 「통일의 선구자 고 늦봄 문익환 목사님 거래장」 22일 9시 대운동장/「전쟁범죄 시인, 책임자 처벌」,정대협 제103차 수요시위/오늘, '고 황인철 변호사' 추도 미사 및 추도식
		2	살인미수 미군 검찰조사, 재판권 행사할 듯/정치적 살인·실종반대 캠페인 AI한국지부/국제인권소식, 아·태지역 주요민간단체들 상호협력 체제 발전할 듯/아·태지역 인권단체 국제회의 2월에 열려/대한변협 성명서
1/21	90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 결실, ILO 『93 노동통계연감』 노동시간·산재사망률 '국제적' 수준/문민적 정부의 여성정책 진단, '여연' 오늘 '여성정책 평가토론회' 개최/'통일의 선구자 고 늦봄 문익환 목사 거래장' 소식
		2	"우리는 결코 문목사님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민가협 '문익환목사 추모 목요일집회'/한준수 전군수 재판 안기부 직원 증인체택, 재판부 기피신청 인정후 첫 공판에서/병역특례문제 공청회, 전해투 28일로 연기/민주당, 문목사 사면목권 및 훈장추서 요구 성명서
1/22	91	1	'김기용씨 사건' 무죄확정 대법원에 탄원, 오늘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예정, 이기택 민주당 대표등 서명/장애인잡지 <열린지평> 94년 봄호(2호) 발간/앰네스티 한국지부 집행위, 23일 오후 1시/김삼석·김은주 남매, 변호인 반대신문 열려/'고 문익환목사 거래장' 소식
		2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조전/김삼석 반대신문(일부 내용)
1/25	92	1	열악한 노동조건 비판 잇따라 자살, 서울·부산에서, "완전월급제" "정당한 산재인정"등 주장/장길산' 원자료 쟁점, 증인 채택키로, 황석영씨 항소심 첫공판/양심수 군문제 해결 촉구, 기독교성직자 1,517인
		2/3	5대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1월 18일-24일)
1/26	93	1	'제보'에 충춘 '과학수사' 재판열려, 27일 수원지법, '화성살인사건' 용의자 물렸던 김종경씨 손배소송/통일원 김인서·함세환씨 방북 긍정검토, 북한 '동진호 선원송환 등에 성의 보일 경우'/'한국여성의 전화' 인천에 지부 개원
		2	특집:고문후유증 사례 3-김종경씨/'점장이'의 제보에 돌아난 '과학수사'의 피해자
1/27	94	1	외국인 노동자 18일째 농성중, 경실련 강당, 노동부에 항의 전화결기운동도 펼쳐/'북한인의 정치적 망명' 선전차원이 아닌 인권보호 차원으로", AI 한국지부/양심선언 박석진 일경, 서울고법 항소심 첫 공판
		2	국제인권소식/유엔 세계여성대회 소식(1), 95년 9월 4-15일 북경/'인구와 개발문제에 관한 국제회의', 이집트 카이로, 9월 5일부터 13일부터/'제5회 민중외교훈련 프로그램' 진행중, 시드니 '뉴 사우스 웨일즈대학', 1일 10일부터 4주간/송광영열사 어머니 이오순씨 별세
1/28	95	1	택시노련 완전월급제 실시 요구, 26일 대의원대회, 사남급 폐지도/고문피해자 보상대책 청원, 26일 법사위에 회부/김국홍씨등 송환 재촉구, 27일 송환추진본부/사랑방 8차 월례세미나, '장애인의 인권현황' 논의/'진정한 탈영병은 누구인가', 박석진 항소심 최후진술
		2	'인권운동 사랑방' 8차 월례세미나/장애인 복지실태에 관한 이해(발제 요약)
1/29	96	1	'원진 직업병' 올해 들어서도 8명, 4개 환자단체 29일 통합, 원진직업병 치료대책, 전문병원 설립 설립 중점/일본 검찰에 '군 위안부' 책임자 고소·고발장 낼듯, 정대협, 28일 민주당 국회의원과 과의 간담회/<시민과 변호사> 창간, 서울변호사회/'정부, 복직약속 지켜야', 「해고자 복직...공청회」/양심수 사회복귀 보장 촉구, 양군모 대표 병무청장 면담도
		2	단체탐방 9, 노동과 건강연구회/산재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건강한 노동을 지키는 파수꾼!!









●인터뷰/필리핀 인권운동연합 사무국장 에블린 발레세라노●

편집자주:호주에서 진행중인 민중외교훈련프로그램(DTP)에 참석중인 이성훈씨가 <인권하루소식>을 위해 기사중에 한 명인 필리핀의 에블린 발레세라노의 지난 1월 27일 DTP 사무실에서 인터뷰한 것입니다.

◇강의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인권하루소식>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필리핀 인권운동연합(PHARA)」이 이렇게 창립되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알다시피 PHARA는 86년 8월 즉 마르코스 독재정권을 민중의 힘(People Power)

으로 쓰러뜨린 지 6개월 후에 창립되었습니다. 당시 변화된 정세하에서 인권운동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느슨했던 「인권운동협의회(PCHR: Conferential body of the Philippine Conference on Human Rights)」보다 강력한 조직의 필요성을 많은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이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86년 8월 100여개 인권단체가 참석한 전국대회에서 정식으로 결성되었습니다. 많은 인권단체 가운데 「구속자대책운동(TFDP: Task Force Detainees-Philippines)」, 「정의평화를 위한 범교파 운동(EMJP: Ecumenical Movement for Justice & Peace)」, 「필리핀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NCC: Human Rights Committee of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개신교 변호인 연맹(Protestant Lawyers' League)」 등의 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상근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았는데 하나씩 극복하여 이제는 필리핀 인권운동을 대표하는 연합체로 튼튼하게 자리잡았습니다.

◇상근자는 몇명이나 되는지요? 그리고 복잡하겠지만 조직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재 상근자는 12명입니다. 그중 한명을 변호사이고 나머지는 인권대중활동경험을 쌓은 인권활동가입니다. 지역단위에 약 40개, 수도 마닐라의 전국단위 조직 약 30개 그리고 연구소 및 개인회원 등 다양한 분야를 회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PHARA는 2년에 한번씩 열리는 전국총회에서 향후 2년간의 사업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고 주요 임원을 선출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실행은 1년에 한번 열리는 지도자위원회(Council of Leaders)에서 검토를 합니다. 이 지도자위원회 아래에 전국조정위원회(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가 있고, 다시 그 산하에 사무국을 비롯하여 캠페인위원회, 법률구조위원회, 연구조사위원회, 로비위원회, 국제연대위원회, 그리고 최근에는 인권교육 및 정보위원회가 신설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PHARA는 유엔의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국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설명해주십시오. -PHARA의 주요 역할은 많은 인권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전국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단체의 수는 많았지만 전국단위의 인권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영향력이 부족했죠. 그리고 많은 인권단체들이 유엔 등 국제연대와 외교의 장을 필리핀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당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규모의 영세성과 재원의 부족으로 제대로 실천을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전국단위 연합조직인 PHARA가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국제연대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립 직후 2명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국제인권법 강좌에 파견하였으며, 그

“철저한 인권교육만이 튼튼한 인권조직 만들 수 있다”

리고 1명은 미국에 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제차원의 회의나 연수회에 지속적으로 회원을 파견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그 결과 이들이 현재 국제연대사업에 주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PHARA는 「국제인권연합(FIDH: Federation International des Droits de l'homme)」의 회원이기도 하며, 모든 활동은 국제인권법과 인권헌장에 등 국제인권장전에 기반해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방콕과 비엔나 인권대회를 통해서 한국 인권운동가들이 만나셨는데 한국 인권운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을 한번도 방문하지 못해 한국의 인권 상황과 인권운동을 체험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비엔나에서 만난 한국 인권운동가의 활약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비록 모두가 영어를 잘하지 못해 많은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해 아쉬웠지만 한국 인권운동가들이 보여준 진지한 자세와 패기 그리고 단결된 모습은 저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인권운동가의 부러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비엔나에서 문화운동그룹(풍물팀)의 공연은 매우 훌륭했고, 마지막 날 아시아 연대의 밤 진행이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시아 인권운동의 현황을 볼 때 그나마 전국단위에서 내용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인권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필리핀 두나라 정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나라가 파트너가 되어 '비엔나 이후(Post Vienna)' 사업을 아시아에서 주도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DTP 강의를 마치는데로 '아시아지역 인권운동협의회'에 참석하러 방콕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모임에 대해 특별한 기대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솔직히 말해 특별한 기대없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알아보기 위해 참관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섭섭하게도 이번 회의가 개최되는데 사전협의의 받지 못해 어떤 배경으로 회의가 소집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이 모아져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권운동이 진일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당하게 주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않고 있으며, 권리는 정부만이 가지는 것이라 믿고 있어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정책적으로 인권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인상을 받는데 어떻게 인권교육을 발전시켜 왔습니까?

-86년 마르코스 정권이 무너지자 많은 사람들이 “민주정부(?)가 세워졌는데 인권운동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희는 체계적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절박하게 느꼈습니다. 앞에서 해외의 인권강좌와 연수에 사람을 파견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87년 먼저 각 인권단체에서 선발된 활동가 50명을 대상으로 약 1달간 집중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더욱 발전되어 현재에는 기초과정 3주, 본과정 3주 그리고 인권교육담당자 과정 3주의 3단계 교육과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단위에서 2회를 실시하였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너무도 많은 사람이 자신이 정당하게 주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않고 있으며 권리는 정부 당국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그동안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인권교육 정책이 수립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인권교육을 정규교육 커리큘럼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인권운동을 조직하는 것 이전에 인권교육이 선행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즉 철저한 인권교육 없이 튼튼한 인권조직이 설 수가 없습니다.

◇인권교육 이외에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1990년 총회에서 「필리핀 인권정보센터(Philippine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 「아시아 인권연구소(Asian Institute for Human Rights)」, 「필리핀 인권협동재단(Philippine Human Rights Cooperative Foundation)」 등의 설립을 결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차적으로 91년에 지도위원회 부설로 「필리핀 인권정보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필리핀 민중의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 민족주권과 모든 분야에서의 인권신장을 목표로 하여 92년부터 94년까지의 중점 사업방향은 다음의 4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 1) 전국적으로 필리핀의 인권 및 민중권 선언을 위해 노력하고,
2) 정부의 무력전쟁 정책을 종식시키고, 강화되는 정치적 탄압과 군사화를 막기 위한 종합 캠페인을 전개하며,
3) 인권존중에 바탕한 평화와 내부 갈등을 초래하는 근본문제의 해결을 위한 필리핀 민중의 노력에 동참하고,
4) 전망, 사업계획 및 조직의 관점에서 인권운동연합을 보다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중 '필리핀 인권 및 민중권 선언(Declaration of Human and People's Rights)'은 작년 말에 인권단체 전반의 의견을 모아 정식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이 많아 재정이 많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재정을 충당하고 있습니까?

-연합체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원칙

적으로 각 회원단체가 부담을 합니다. 각 회원단체가 해외 재정단체에서 원조를 받을 때 아예 연대활동비를 예산항목에 넣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공헌하기가 힘든 단체는 인력을 파견합니다. 제가 속했던 「구속자대책운동」이 그러한 경우이지요. 사무국 예산은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해외 원조단체에 재정신청을 합니다.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저럭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86년 이후 정부와도 함께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시령으로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인권위원회(PHRC: Presidential Human Rights Committee)에 저희 PHARA는 「무료법률지원단(FLAG: Free Legal Assistance Group)」과 함께 필리핀 인권운동 전체를 대표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조직적으로 추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유네스코로부터 1989년에 상을 받았고, 또한 PHARA가 주관하는 인권교육 강좌는 문교부에서 학점으로 인정해줄 정도로 상당한 공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대학에 인권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운동 특히 PHARA에 참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현재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어떤 소감을 지니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다른 활동가와 마찬가지로 저도 학생운동 출신입니다. 70년대 초반 대학에서 사회사업을 공부했습니다. 졸업후 미국유학의 기회가 주어질 때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톤도(Tondo)지역의 빈민촌에서 일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농촌에서 일하다가 남편이 82년에 다시 구속된 것을 계기로 구속자 가족과 친척을 조직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86년부터 92년까지 「구속자대책운동」에서 일했고, 작년부턴 PHARA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단위의 기구라서 일이 많고 국제회의에도 자주 참석해야 하므로 정신없이 바쁘지만 나름대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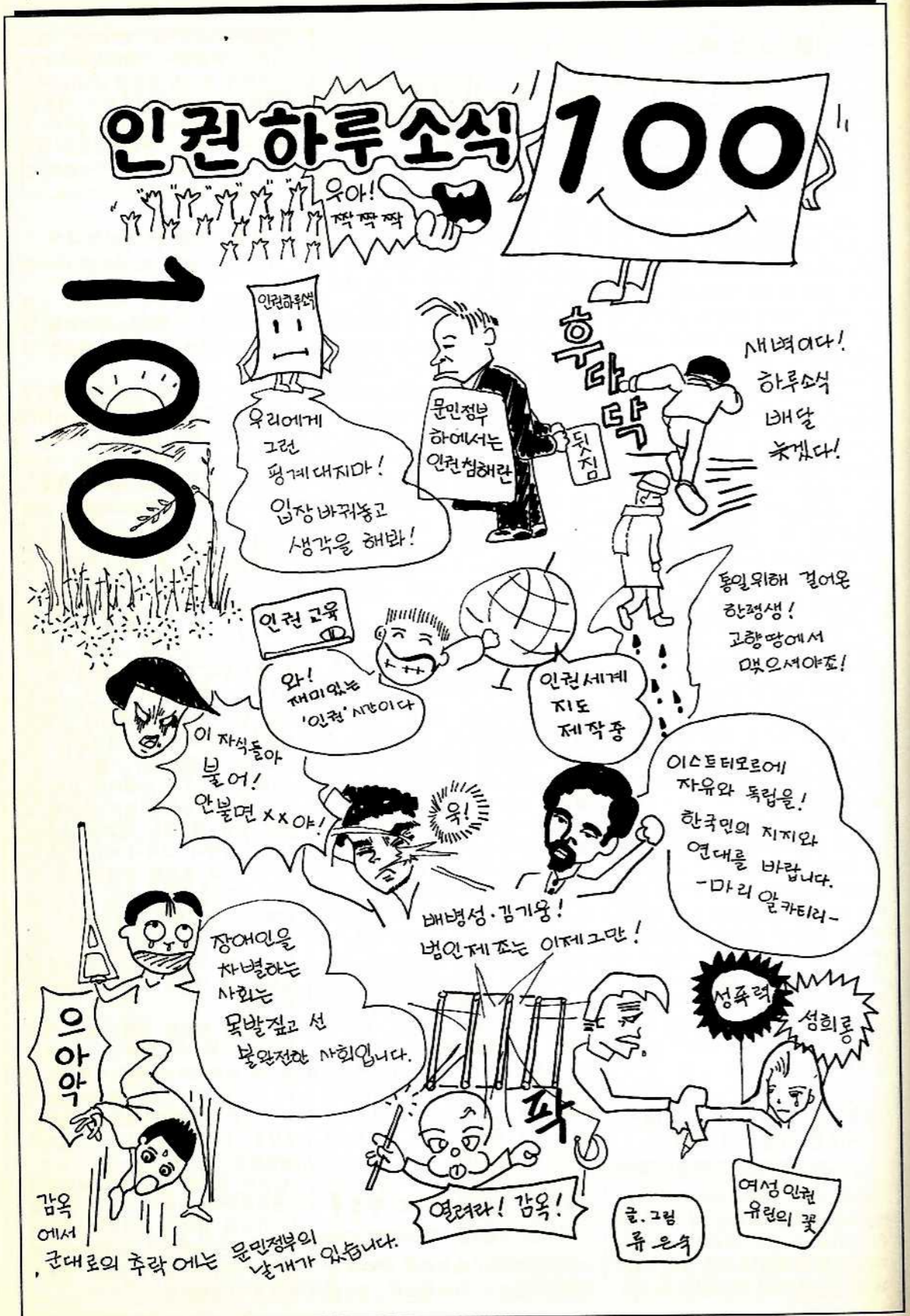
◇국제인권단신◇

국제앰네스티, 미국내 사형집행 중단 요구

여러 나라에서 사형폐지운동이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올해 1월 국제앰네스티는 미 대통령 클린턴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내 사형집행을 중단하도록 촉구하였다. 미국은 1977년 사형제를 부활한 뒤 지금까지 226명을 처형했으며, 작년 한해에는 38명을 사형시켰다. 작년 사형집행된 사람중 4명은 청소년이었으며 상당수가 정신 이상자였다.







# 인권하루소식

## 색 인

(준비 1호 - 제100호)